

1

차량수리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

성별	남	나이	43세	직종	기계조작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윤○○(42세, 남)은 18세 때인 1979.2. H자동차공업(주)에서 24년 간 차량 수리업(하체수리 및 판금작업)을 하던 중, 2003.5.23. 두통증상이 나타나 현재까지 원발성폐암(선암4기, 뇌전이)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.

2 작업환경

윤○○은 총 26년 9개월 간 차량수리작업(하체수리 및 판금작업)을 하였다. 상기 근로자는 상기 사업장에서 23년 간 승용차 및 2.5톤 미만의 트럭 수리업무를 하였다. 본인의 주 업무는 승용차수리 중 판금작업이라고 설명하였다. 또 23년 간 근무시 브레이크라이닝 교체를 비롯한 하체 및 엔진수리작업이나 도장작업을 한 적은 거의 없으나 하체부서가 바로 옆에 있어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하체수리(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 포함)를 지원해준 적은 있었다.

23년 전 3년 9개월 간 상기 사업장이전 수리업체에서는 판금작업대와 하체수리 작업장소가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다. 당시에는 판금, 하체작업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적은 없었고 산소용접후 절단면의 차체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연마작업을 연마기로 1일 2~4시간 정도 하였다고 하였다



3 의학적 소견

윤○○은 2003.5.23. 두통이 있어 2003.5.26. 원발성 폐암(선암), 뇌전이암으로 진단 받아 항암치료중이다.

4 결 론

윤○○의 폐암은

- ① 원발성 폐암(선암)으로 확진되었는데,
- ② 상기 근로자는 폐암의 호발연령보다 일찍 발병하였고 흡연을 한 적이 없고 다른 발생원인을 배제할 수 있어 폐암발생의 직업적 원인을 고려할 수 있고,
- ③ 상기 근로자의 차량수리작업시 폐암 발생 유해인자(석면)의 노출가능성이 높았고 최초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하여 폐암발생에 충분한 기간인 26년 이상 경과 되어 발생하였으므로,

근로자 윤○○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.